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응한 담배 성분분석

김 효 근

KT&G 중앙연구원

과거의 담배규제는 광고, 판촉, 유통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규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제품담배의 리스크(risk) 감소관점에서 제품담배 자체에 대한 규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규제대상의 초점은 제품담배의 내용성분과 더불어 배출물(담배연기) 중의 독성성분 함량 및 독성시험 결과 등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일부조항(제 9~11조)과 담배규제와 관련된 WHO 스터디 그룹인 TobReg의 권고안(Recommendation 1)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회사들은 제시된 규제대상 항목들을 영국의 Laboratory of the Government Chemist(LGC), 캐나다의 Health Canada(HC),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Public Health Department(MDPH)와 같은 주요 규제선진국의 해당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석법에 따라 매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각국의 검사기관은 이 데이터를 확인하여 규제당국에 의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다양한 쉐련제품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분석항목 별로 표준화되고 검증된 표준분석법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특히 연기성분의 함량측정과 연기 독성시험의 근간을 이루는 ISO 표준흡연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제흡연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현재 TobReg 멤버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ISO 표준흡연방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이 ISO의 담배분야 기술위원회(TC126)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KT&G 중앙연구원은 ISO의 한국대표기관인 산자부 기술표준원과 함께 이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새로운 표준흡연방법의 제정작업 추이를 면밀

히 관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CORESTA의 Sub Group과 Task Force를 중심으로 하여 제품담배 중의 잔류농약 측정, 연기성분 분석 및 담배연기의 독성평가와 관련된 표준화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KT&G 중앙연구원이 참여했던 국제공동연구결과를 선별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국 FCTC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적 권고안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담배분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결과들은 향후 현실화 될 제품관련 각종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